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中 경제, 코로나 19로 타격 예상되나 곧 회복할 듯
  - ◇ (칼럼)-금리인하 기대에 '돌직구' 날린 한은 총재와 채권시장의 학습효과
  - ◇ (초점)-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분주한 국내 딜링룸..인력 재배치 등 'BCP 가동'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한 부부가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로이터/앨리 송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1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83.0	0.3%	-2.2%	-3.5%	유로	1.0830	-1.0%	-3.4%	-2.3%
100엔 대비	1,077.2	0.8%	-1.4%	-4.4%	엔	109.74	0.0%	-1.0%	0.9%
유로 대비	1,280.6	1.8%	1.0%	-1.3%	위안	6.9775	-0.1%	-0.2%	-1.3%
위안 대비	169.22	0.5%	-2.1%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9,398.08	1.0%	3.0%	22.3%
코스피	2,243.59	1.4%	2.1%	7.7%	나스닥	9,731.18	2.2%	8.5%	35.2%
코스닥	688.91	2.4%	2.8%	-0.9%	S&P500	3,380.16	1.6%	4.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56.12	1.6%	0.6%	15.8%
국고채 3Y	1.330%	5.0bp	-3.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454%	5.6bp	-2.6bp	-40.4bp	미국채 2Y	1.430%	2.9bp	-13.1bp	-93.7bp
국고채 10Y	1.653%	5.2bp	-3.0bp	-26.5bp	미국채 10Y	1.588%	0.7bp	-32.2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52.05	3.4%	-14.8%	34.5%	한국 5Y	21.9bp	-1.7bp	0.8bp	-17.0bp
금(현물)	1,584.32	0.9%	4.4%	18.3%	일본 5Y	15.5bp	-0.4bp	-2.3bp	-4.0bp
TR상품지수	2,428.68	1.6%	-2.3%	4.8%	중국 5Y	32.8bp	-1.9bp	2.2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2월 17일(월)>

- 기재부, 2019년 AMRO 연례협의 최종보고서 발표
- 기재부,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

### <18일(화)>

- 특이일정 없음

### <19일(수)>

- 한은, 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20일(목)>

- 한은, 1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12:00)
- 한은, 2019년 12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21일(금)>

- 관세청, 2월 1-2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2019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2월 17일(월)>

- 일본, 2월 로이터 단칸 (8:00)
- 일본, 4분기 GDP (연율) (8:50)
- 중국, 1월 주택가격 (10:30)
- 일본, 12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12월 건설지출 (19:00)
- 미국 휴장

### <18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2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9:30)
- 미국, 2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 <19일(수)>

- 일본, 12월 기계주문 (8:50)
- 일본, 1월 수출입 (8:50)
- 유로존, 12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건축허가 (22:30)
- 미국, 1월 주택착공 (22:30)
-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2:30)

### <2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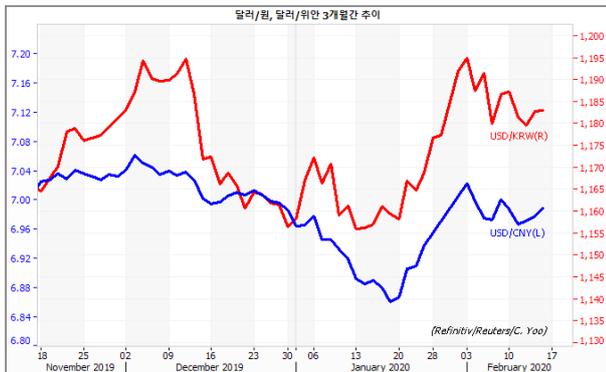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1월 28-29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4:00)
- 중국, 2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 5년물 (1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2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월 경기선행지수 (자정)
-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 <21일(금)>

- 일본,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일본, 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9:30)
- 유로존, 2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2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미국, 1월 기존 주택판매 (자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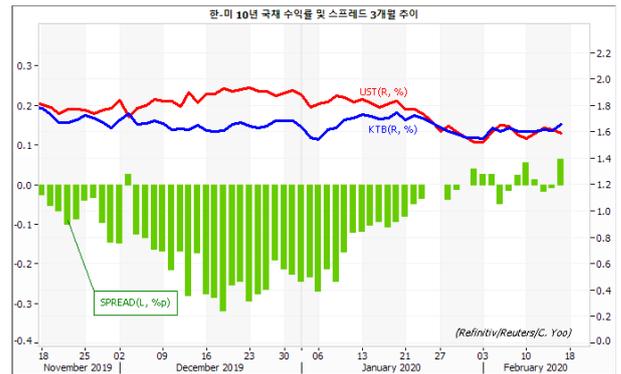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0 원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환율 상승을 견인하는 모멘텀으로서의 위력은 다소 약해졌다.
- 물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 양상이 한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당장 원화의 본격적인 강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 약세 지속에 강하게 베팅하기도 어렵다.
- 국내 증시가 때때로 흔들리지만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원화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가 최근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일방적인 원화 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 이에 당분간 원화는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코로나 19에 따른 모멘텀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심리는 다소 안정될 수 있겠지만, 달러 강세 모멘텀 확산 정도를 가능하며 달러/원 환율은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주 후반에는 2월 1-20일까지 한국 수출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지난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 선 긋기' 발언을 소화하며 조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순 이후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포지션을 쌓고 있는 외국인의 행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지난 14일 거시금융경제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완곡어법보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한은 집행부 입장에서 시장의 인하 기대감이 과도해 2월 금통위 회의 전에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모습이다.
-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금방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당장 2월이 아니라도 4월이든 5월이든 기준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이 쉽게 포지션을 꺾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다만 이전처럼 국내기관이 일방적으로 외국인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어도 2월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만큼 국내기관들은 채권 입찰 흐름에 주목하며 헤지 타이밍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번주에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21일에 발표되는 2월 첫 20일간 수출입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이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POLL)-中 경제, 코로나 19로 타격 예상되나 곧 회복할 듯**

- ◆ 코로나 19 中 경제 영향 조사 결과 그래프:  
⇒ <https://tmsnrt.rs/3bCVBNp>
- ◆ 中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그래프:  
⇒ <https://tmsnrt.rs/2SKdZLX>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1 분기 중 금융위기 이후 가장 더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나, 확산이 억제되면 경기 하강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로이터가 2월 7-13일 중국 본토와 홍콩,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지의 이코노미스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의 1 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 분기의 6.0%에서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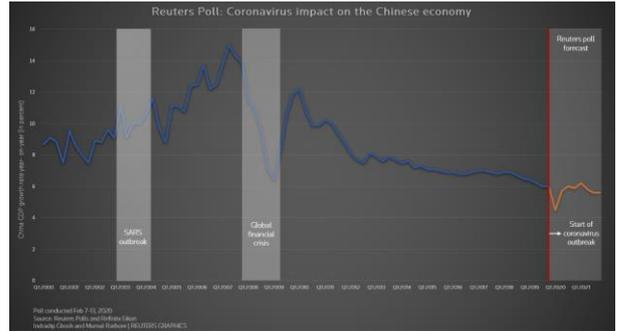
2020년 성장률은 2019년에 기록한 1990년 이후 최저치 6.1%에서 5.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러나 경제가 이르면 2 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낙관했다. 2 분기 GDP 성장률은 5.7%로 예상됐다.

전망치는 중국 본토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높아진 것으로, 전망치 범위는 2.9-6.5%였다.

런던 소재 판테온의 프레야 비미쉬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바이러스 억제 노력이 성장에 미칠 피해를 아무도 모르며, 통계의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어쩌면 절대 모를 수도 있다. 우리는 4 분기 4.0%로 공식 성장률 6.0%보다 훨씬 낮았던 실제 GDP 성장률이 1 분기에는 2%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 손실분은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만회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 부문 활동은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1 분기에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고 두 번 자르거나, 못 마셨던 커피를 두 잔 마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강제 휴업이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 있어 대목인 춘제 기간 중에 시작돼,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은 코로나 19 발병 이전에도 이미 감지되었던 하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일부 본토 이코노미스트들은 응답을 꺼렸다.

별도의 질문에 응답한 이코노미스트 15명의 전망치 중간값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1 분기 성장률은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 범위는 0-5.5%였다.

베이징 소재뱅크오브차이나인터내셔널의 빙난여 선임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바이러스가 4 월까지는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1 분기 성장률은 2-3%로 하락하고, 2020년 5%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2020년 전망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전망치 중간값과 같으며, 2020년 성장률이 최대 1%p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도 일치하는 수준이다.

홍콩 소재 ING의 아이리스 팡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신규 확진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 19가 제화된 이후 완전히 회복하려면 4 분기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2003년 사스 때와 비교해 훨씬 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사스 이후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와 서비스 중심 경제로 현저히 바뀌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스 이후 16%로 4 배가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활동 차질은 세계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시아 통화 전망을 가장 정확히 예측했던 MUFG의 리 하드만 통화 전략가는 "위안에 있어 전방적인 절하론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칼럼)-금리인하 기대에 '돌직구' 날린 한은 총재와 채권시장의 학습효과**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기 경제 방향에 대한 우려만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된다. 그럼 시장에선 인하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면서 현재의 장세를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거시금융경제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한 대형 증권사의 채권본부장이 했던 말이다. 어찌 보면 현재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단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발병 전에 국내 경제지표가 회복 국면에 있었던 것을 시장참가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여기에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코로나 19 확산 뉴스에도 국내 기관 운용역들은 쉽게 포지션을 늘리지 못했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 뉴스와 함께 국채선물과 이자율스왑(IRS) 시장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을 구축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문제로 중국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타격을 받을 국가에 대한 모멘텀 트레이딩 성격의 매수였다.

국내 기관 운용역들은 외국인의 힘과 한은의 딜레마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고 외국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니 앞으로 숏 장이 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코로나 19 확산의 정도와 기간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은이 시장의 기대를 일도양단(一刀兩斷)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단기물 채권 매수의 리스크를 더 낮춰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 **▲정공법 택한 한은 총재..시장 기대 수준 조정**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시장참가자들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결과가 펼쳐졌다. 14일 거시금융경제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 19 관련 전개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니 한은의 대응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최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능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적 영향은 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이 2월 회의에서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에 임하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의 전격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균열을 내기 충분했다.

시장은 이 총재의 완곡어법을 예상했는데 막상 이 총재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 총재가 정공법을 택한 건 한은 집행부의 판단과 시장의 통화정책 기대지형 간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 집행부 입장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있어 세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금리 인하의 효과다. 현재의 소비 부진이 소비 여력 약화 등에 따른 경기 기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공포심리에 기인한 것일 때 금리 인하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의 학습효과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이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됐을 때 금융 불균형에 따른 비용이 금리 인하의 편익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불안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정부 역시 강하게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한은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당시에도 경제 수치가 좋지 않았지만, 문제는 추세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출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믿었던 소비까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자 금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조정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일단 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는 있어 2015년처럼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총재가 2월 금통위를 코앞에 두고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같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 학습효과 기억하는 채권시장.. 향후 경제지표 주목

하지만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아 그런가요' 하고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5월과 6월 시장의 기대심리를 제어하려다 큰 낭패를 보기도 했다.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이후 열린 5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기대감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6월 12일 한은 창립기념사에서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의 발언을 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마침 청와대 관계자가 기존의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거둬들이는 직후였기 때문에 한은 총재의 변심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됐다.

당시 한은 관계자들은 이같은 이 총재의 발언 수위 변화를 '시장의 기대 수준 조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순식간에 7월 인하로 쏠릴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5월 금통위 때는 표현 수위를 조절했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제지표가 관건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국내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총재 역시 향후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급하게 고꾸라지면 그동안 했던 말을 주워담아야 한다. 시장참가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코로나 19 후유증에서 회복하면 그동안 쌓았던 롱 포지션을 되감아야 한다.

이번에 보여준 이 총재의 선택은 분명했다.

시장참가자들은 이제 장고에 들어가야 한다. 단기 패닉 심리에 의지해 연승을 거뒀던 외국인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 **(초점)-신종 바이러스 사태에 분주한 국내 딜링룸.. 인력 재배치 등 'BCP 가동'**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딜링룸의 경우 '컨틴전시 플랜'이 일부 가동되는 등 분주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시 업무 지속 계획, 즉 BCP(Business Continuity Plan)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실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분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외은 지점은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가운데 실제 BCP에 따라 인력을 분리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전체 인력 중 일부가 BCP에 지정된 사업장에서 업무를 나눠 하는 형태다.

한편 다른 외은 지점은 조를 나눠 서로 대면하지 못하게 하거나 BCP 지정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나 휴가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세가 심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도는 낮지만 전파력이 강한 만큼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 태세를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한 명이라도 신종 바이러스에 걸리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BCP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소는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소독 지침에 따라 소독을 하고 이틀 후에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은행들도 실제 대응 수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BCP를 점검하며 관련 리스크에 대해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 딜링룸은 10일부터 을지로 신관에 일부 인력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BCP 사업장을 쓰기 전 을지로 신관에 장소를 마련해 어제부터 인력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최근 사태를 BCP 적용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10일부터 이에 따른 인력 재운용에 나섰다.

KB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필수 대체인력을 가려 명령휴가를 냈고 내일부터 BCP 사업장에서 따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또한 BCP 메뉴얼 대로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BCP 사업장으로 일부 인력을 배치할지를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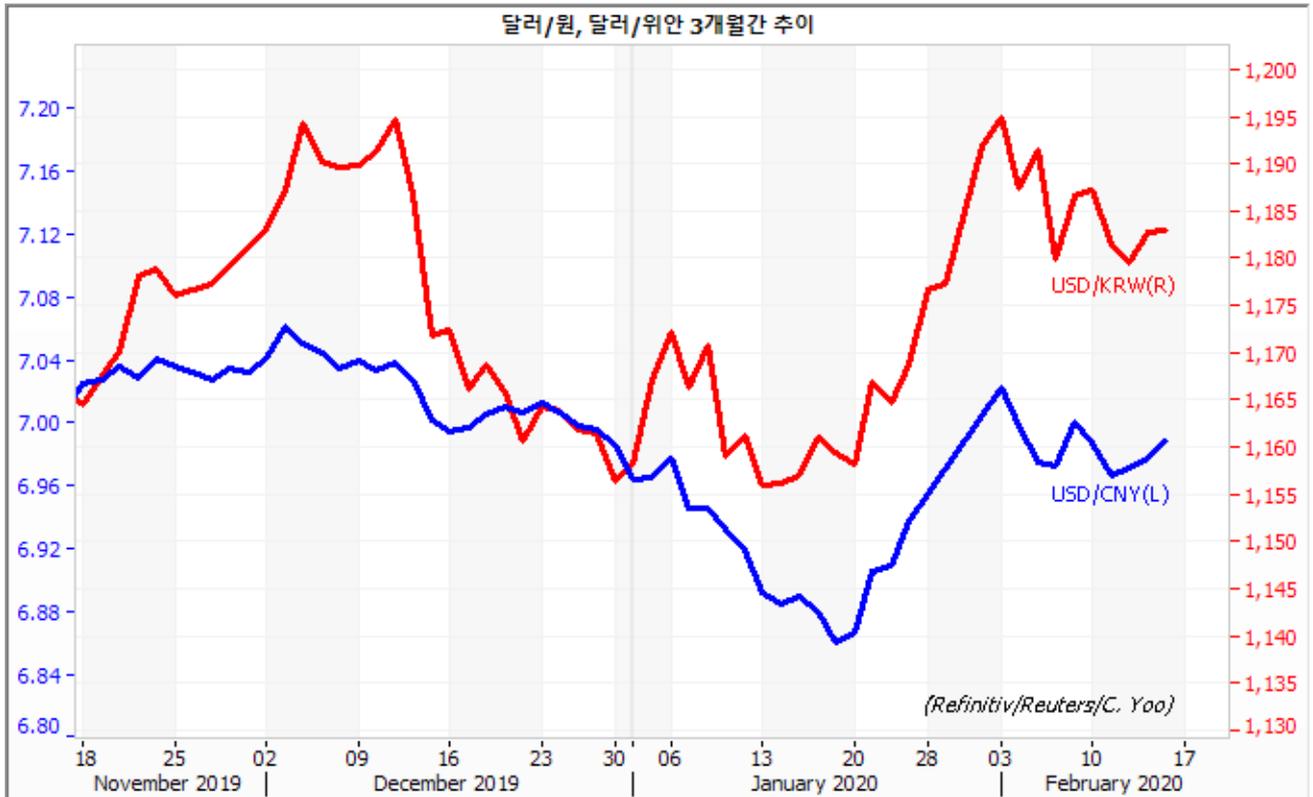
우리은행 역시 대체 사업장을 만들고 관련 상황을 점검 중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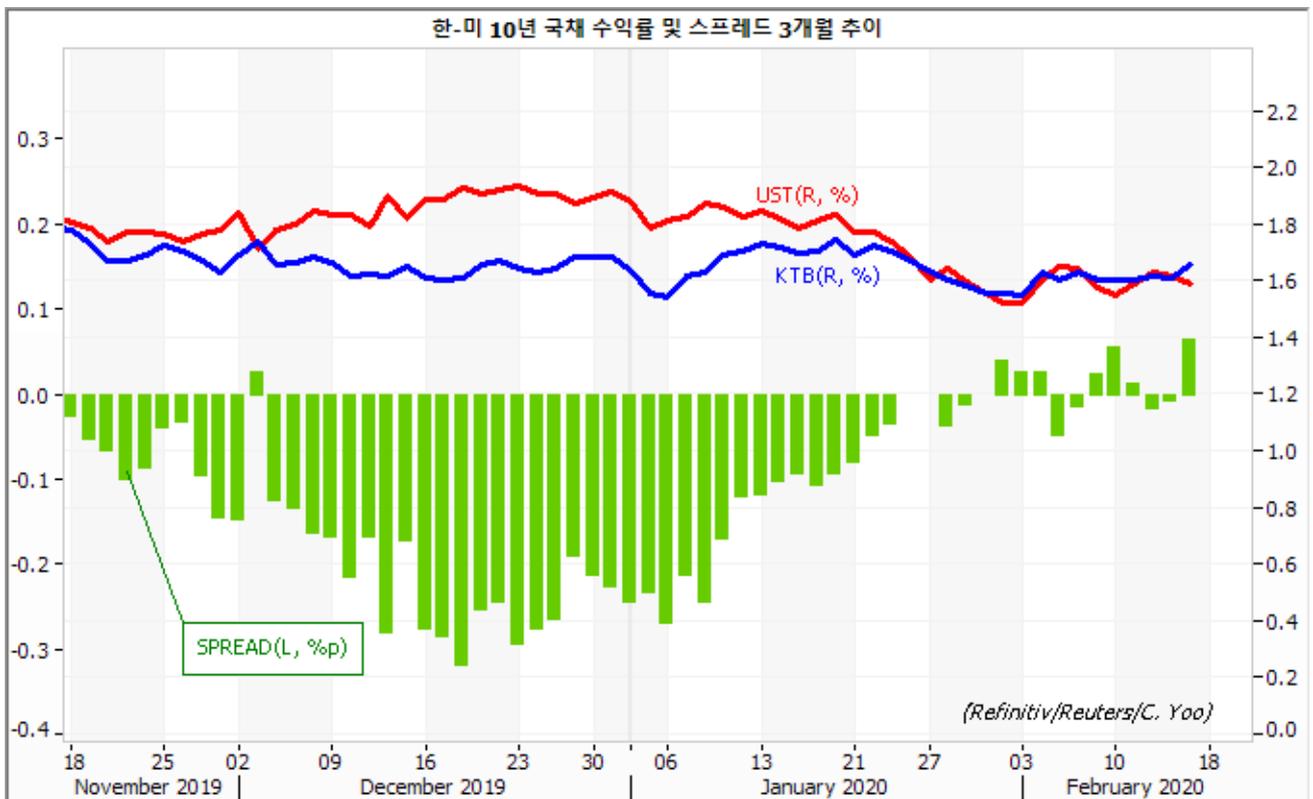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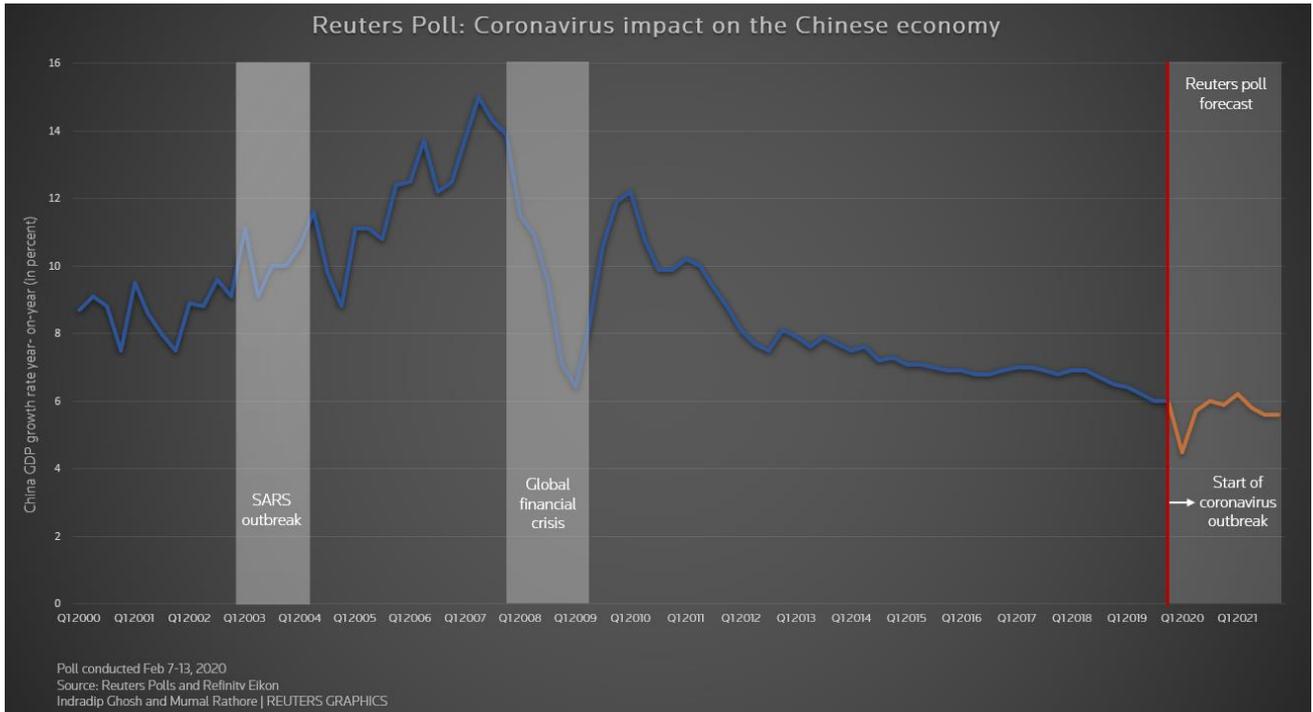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